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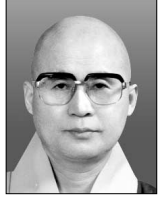
일주문



생축 발원·영가천도법회 고산 부산 해원정사 조실은 7-26일 대웅보전에서 제12회 고승초정 화엄경 법회와 함께 생축발원 및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한다.



24명에 석암장학금 전달 정현 석암장학회장은 3일 부산 내원정사에서 제56기 석암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24명에게 1,460만 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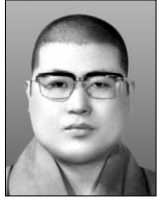
범어사 성보박물관 개관 성오 부산 범어사 주지는 26일 범어사가 소장한 불교문화재를 보관, 전시할 성보박물관을 개관한다.



'지하철 참사' 심사위원회 범타 영천 은해사 주지는 10일 발족한 대구 지하철 참사 실종자 인정사망 심사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보살계 수계 산림대법회 현문 양산 통도사 주지는 4월 6-8일 금강계단 보살계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055)382-7182



진신사리·패엽경 이운 자우 서울 정릉 금강사 주지는 4일 스리랑카 알부비하라 사원에서 부처님 진신사리와 패엽경을 이운해 왔다. (02)993-3744



귀능학교서 자연의학 강좌 도법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는 28-30일 실상사 귀능전문학교에서 제11기 자연의학 강좌를 개최한다. (063)636-3776



태고종 대륜문도 회장에 태고종 남양주 선덕사 주지는 10일 서울 법륜사에서 열린 총회에서 태고종 대륜문도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 도원 부산 삼광사 주지는 15일 부산 서면 하나방에서 차문화보전회 주관으로 전통다도 시연 및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 행사를 열었다.



백혈병 환우 지원금 전달 일철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 본부장은 19일 오후 3시 전남대병원에서 백혈병 환우 지원금 600만 원을 전달한다.



매주 수요일 호흡법 수련 청견 양평 법원정사 주지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서울 청호불교문화원에서 호흡법 수련을 실시한다.



28일 시찰음식 시연회 열여 적은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은 28일 오전 10시 경기도 화성 '등지 청소년의 집'에서 사찰음식 시연회를 연다. (02)355-5961-3



훈련병들 대상 대중공양 체회주 심우회 재무는 회원 30여 명과 함께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대중공양을 한다. (011)899-1777



불교대중화 기여 공로패 경주중 감독은 14일 조계종으로 부터 영화 '동승' 제작을 통해 불교대중화에 기여했다는 공로패를 받았다.

“고대 바닷길 불교문화교류 통로”

한-중-일 옛 항로 뗏목 항해 운명철 교수



대항해에 나선다. 윤 교수는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한국 및 중국인 대원 5명을 이끌고 중국 저장(浙江)성 저우산(舟山)군도를 출발해 산둥(山東)반도~

사학자 겸 탐험가인 동국대 운명철 교수(사학과 겸 입교수·사진)가 9세기경 한 중일 세 나라의 바다를 통한 문화교류를 입증하기 위한

‘장보고호’로 지었다. 뗏목 탐사의 실질적 출발지는 산둥성 통청(榮成)시 석도진 부근의 적산법화원. 장보고가 828년 이곳에 거주하는 신라인들을 위해 세운 절이 있던 곳이다. 윤 교수는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일본 천태종 3대 종정 엔닌(圓仁)이 847년 이곳을 출발, 한반도 남부 청해진을 거쳐 일본 규슈 하카타(博多)에 도착한 항로를 재현해 뱃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시간마다 GPS(위성추적장치)를 이용, 항로를 좌표로 찍어 나간다.

“사실 동아시아 해양의 코드는 불교였다”는 윤 교수는 “고대 바닷길은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불교를 비롯한 문화 교류의

중 → 한반도 → 일, 불교전파 경로 입증할 것

인천-목포-완도(청해진)를 거쳐 일본 규슈(九州)까지, 총 2700km에 이르는 거리를 뗏목 하나로 항해한다. 저우산 군도에서 산둥반도까지 1200km는 배로 뗏목을 예인해 가고 산둥 반도부터는 그야말로 바람과 조류만을 이용해 ‘표류성 항해’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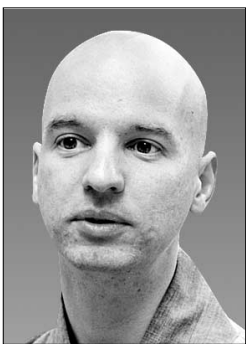
“9세기경 동북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은 중국 산둥반도와 청해진, 일본 규슈에 이르는 바닷길이었다고 그 길을 장악했던 사람이 바로 장보고였다. 그 항로를 구체적으로 복원해 보고 싶다”는 윤 교수는 뗏목 이름도

통로였다”고 강조했다. “조류와 바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뗏목 탐사가 끝나고 고대 항로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되면 일본의 일부 역사학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불교가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파됐다는 사실도 자연스레 입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윤 교수는 고대 중국과 한반도가 5-6천 년 전에도 바다를 통해 교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96년 중국 저장성-산둥반도, 97년 저장성-소hook산도-인천을 뗏목으로 항해하기도 했다. 권형진 기자

“한국불교 우수성 화두선에 있죠”

헝가리인 청안 스님 조계사 불교대학서 강연



로 하는 한국 선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헝가리 불교는 대승불교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어 명상, 참선 등 선수행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또 스님은 “한국에만 남아있는 화두선의 전통은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라며 “고국에서도 한국의 화두선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선은 종교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94년 화계사 조실 송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청안 스님은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5년간 선수행을 하고, 1999년 8월 지도법사 인가를 받았다. 현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보광선원에 주석하면서 3곳의 선 센터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동유럽 각지를 돌며 선을 지도하고 있다.

청안 스님은 “유럽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참선을 위주

“한국불교의 우수성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강력한 방법인 화두선의 전통이 살아 있다는 데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는 눈 푸른 청안(靑眼) 스님(사진)이 3년만에 돌아와 국제포교사회 초청으로 12일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의 주제는 ‘불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3년 동안 유럽인을 상대로 한국불교를 포교한 경험을 털어놓는 자리였다.

청안 스님은 “유럽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참선을 위주



區內 장애인들 새삶 터전으로

광주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정민숙 관장

“광주에서 구 단위로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7천여 광산구내 장애인들이 새 삶의 터전을 가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일 개관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정민숙 관장(59·사진). 정 관장은 “장애아동이나 정신지체자들은 제대로 자기 의사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 사이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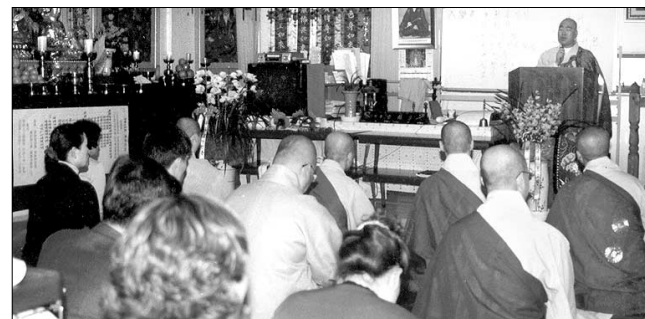
경우가 많다”며 “장애 아동과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완벽한 교육 프로그램 조속한 시일 내에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정 관장은 <광산구 장애인의 생활상태와 복지욕구> 보고서를 작성해 개관식 날 배포했다. 또한 “장애인이 마음놓고 이용하기에는 현재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정 관장은 내년까지 복지관을 5층으로 증축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조계종 포교사단 3돌 법회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9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평화 집안,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법어 등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는 조철주 서울·경기 포교사단 교도소 5팀 팀장, 문웅선 감사 등 46명의 우수한 포교사들에게 표창 및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날 월운 스님은 “생활속 불교실천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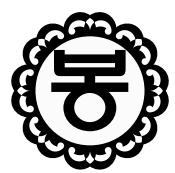
광주불교의식대학 입학식

광주불교의식대학(학장 혜공)은 12일 강당에서 제5기 입학식을 열었다. 불교의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광주불교의식대학 입학식에는 30여 명의 학인이 참석했다. 이날 입학식에서 혜공 스님은 “졸업할 때까지 부처님의 말씀과 의식을 배워 불국정토를 이루하겠다는 초발심이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며 학인들의 수행정진을 당부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경북 공무원불자회 합동법회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 공무원 불자회는 9일 영천 은해사에서 신년 첫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은해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된 합동법회는 경상북도청 김영재(경제통상실장) 불자회장, 김휘동 안동시장장을 비롯 김천, 경주, 안동, 구미, 영천, 상주 등 도내 12개 시군청의 500여 공무원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創宗 23週年 世界平和 祈願 大法會



귀의 삼보하옵습니다.

불안한 세계정세 속에서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인 대한불교원융종이 창종 23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로 발전하는 원융종의 오늘은 모든 종도님의 정진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세는 더욱더 불교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하여 세계정세가 안정된 평화로 귀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번 제미년 23주년 대한불교원융종 창종법회는 종단의 어른 큰스님들을 모시고 “세계평화 기원” 대법회로 봉행하고자 하옵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모든 종도 및 불자님이 수회 동참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원장 법륜 합장

- 종 정 영산 일공 봉행의원
- 부 종 정 유념 법신 (무순)
- 원로원장 송산
- 봉행위원장 법륜
- 부 위 원 장 성관, 선진, 대월

내용

- 일 시 : 불기 2547년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 광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원용사

- 주 관 :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
- 문 의 : 전화 02)853-0531 팩스 02)853-0532



大韓佛教 圓融宗 창종 23주년 봉행위원회